

[류현미의 우리음식 맛보기] 단군신화오리찜



중국여행을 할 때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바로 '베이징 덕(Beijing Duck)'이다. 주재료는 말 그대로 오리다.

오리는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식품 재료로 애용돼 왔다. 최고 장수 건륭황제도, 미인 양귀비도 바로 이 오리 요리를 즐겨 먹었다.

국내에서는 과거에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이나 발이 오리발이 된다'는 등의 속설에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오리 특유의 냄새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점차 약재로 사용하던 오리가 그 영양과 맛이 널리 알려지면서 점차 누구나 선호하는 보양식으로 보편화됐다.

실제로 오리고기는 영양식품 중 으뜸으로 칠 만하다. 닭고기 보다 콜레스테롤은 낮고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은 건강보양음식이다.

또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 니코산과 인체에 필요한 성분인 칼슘, 철, 인 그리고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신경통, 병후의 회

복, 중풍예방에 좋은 식품이며 알칼리성식품으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오리의 기름은 다른 육류의 기름과 달리 물에 녹는 수용성이어서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2월, 수능이 끝났고 매서운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손님을 초대할 오리를 이용한 식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유황오리에 버섯과 밤, 은행, 쑥, 마늘 등을 넣은 '단군신화오리찜'이 제격이다.

한방약재를 이용한 육수를 약선 찜요리로 응용함으로써 기운이 없고 허약증에 겪는 사람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보양식이다. 한방약재 육수로 고기의 잡내도 없애고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일품요리다.

주말이 아니면 온 가족이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어려운 요즘, 풍성한 단군신화오리찜을 앞에 두고 토닥토닥 위로하며 모든 이가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외국에서 크리스마스하면 칠면조 요리를 내놓듯이, 우리나라에서는 12월하면 단군신화오리찜을 내놓음으로써 축산농가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하다.

◆ 재 료

오리 700g, 표고버섯 5개, 밤 10개, 대추 10개, 마늘 10개, 은행 10개

*육 수 : 구기자 5g, 둥글레 30g, 대파 1대, 생강 5g, 물 10컵

*양념장 : 간장 4T, 설탕 1T, 꿀 1/2T, 다진 파 1T, 다진 마늘 1T, 깨소금 1T, 후춧가루 1t, 청주 1t, 양파즙 1/2T, 참기름 1T, 쑥가루 1/2t

오리.소.식.

◆ 만드는 방법

- 오리는 내장과 기름기를 떼어내고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서 데쳐 낸다.
- 냄비에 구기자, 둥글레, 대파, 생강, 물을 넣고 끓이다가 체에 걸러 육수를 만들어 준비한다.
-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불린 뒤 기둥을 떼고 물기를 닦는다.
- 곁쪽에 꽃모양으로 보기 좋게 칼집을 넣는다.
- 밤은 껍질을 벗기고 대추는 면보로 닦고 씨를 빼고 각아 마늘을 넣어준다.
- 은행은 팬을 달구어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굴러가며 2분정도 볶아 껍질을 벗긴다.
- 양념장을 만든다.
- 냄비에 오리와 재료가 잠길 정도의 준비한 육수를 붓고 센 불에서 끓으면 불을 줄여 중간 불에서 20분 정도 서서히 끓이다가 1/3의 양념장을 넣는다.
- 40분 정도 고기가 푹 무르도록 익힌 다음 국물이 반 정도로 줄어들면 표고버섯, 은행, 대추마늘과 남은 양념장을 넣고 끼얹어가며 윤기를 낸다.
- 국물이 자작해지면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낸다.

Tip. 기호에 따라 마른 홍고추를 넣기도 한다.

▶ 경기일보 강현숙 기자 [2014. 12. 05]



고 또 먹고' 특집으로 꾸며져 김유정, 김태우, 김준현, 홍진영, 페이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페이는 “한 번에 많이 먹지는 않고 하루 종일 계속 먹는 스타일이다. ‘또 먹고 있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페이는 “중국에서는 엄마의 요리를 언제나 잘 먹는다. 엄마의 주특기는 오리 요리다. 통째로 구운 오리 한 마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먹었다”며 오리 한 마리를 거뜬하게 먹는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 아주경제 이금지 기자 [2014. 12. 05]

미스A 페이, 대식가 인증
“오리 한 마리 다 먹어”

‘해피투게더’에서 페이가 대식가를 인증했다. 12월 5일 오후 방송된 KBS2<해피투게더>는 ‘먹

‘비정상회담’ 슈퍼주니어 조미,
“中 오리머리 인기 많아.. 별미”

‘비정상회담’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조미가 직접



오리머리고기를 가져와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12월 8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는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과 조미가 게스트로 등장해 '종류별로 호신용 무기를 들고 다니는 나, 정상일까 비정상일까'를 주제로 각국 대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조미는 직접 오리머리고기를 가져와 "중국에서 인기 많다. 별미다"라고 소개했다. 강인과 이탈리아 대표 알베르토는 조미가 가져온 오리머리 고기에 호응하며 "진짜 맛있다", "별미다"라고 응했다.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조소현 인턴기자 [2014. 12. 09]

농식품부 "AI 발생한 캐나다 닭·오리 수입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2형)가 발생한 캐나다산 가금류·가금육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닭, 오리, 칠면조, 애완조류, 타조류 등 가금류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12월 4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칠면조농장과 육계농장에서 AI 발생을 확인했고 육계농장 2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캐나다로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상태다. 다만 오리털의 경우 AI 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로 열처리된 제품만 지난해 84t, 올해 68t 수입했다. 앞서 지난달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북미에서도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차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AI 발생지역은 중국·인도·북한·일본 등 아시아, 리비아 등 아프리카를 포함해 4개 대륙 16개국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연시 해외여행을 갈 경우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수입금지는 AI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2014. 12. 03]

원주 닭·오리 사육장 불... 닭·오리 50여 마리 소사

12월 3일 오후 4시 39분께 강원 원주시 판부면 인근 임모(56)씨의 계사장에서 불이 나 건물 1동

이 전소됐다.

불이 나자 119소방대원 19명과 소방차 9대가 동원돼 약 20여 분간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닭과 오리 50여 마리가 불에 타 죽고 건물 1동(33㎡)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임씨는 화재가 난 것을 보고 초기진화에 나섰다가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계사장 안에 있던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뉴시스 박혜미 기자 [2014. 12. 03]

도압장 AI검사 추진 '논란'

오리업계, “출하 전 이미 검사 ...
실효성 의문” 반발

방역당국이 AI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AI검사를 도압장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오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오리 도압장 AI검사를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에 대한 오리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농축산부가 추진하는 도압장 AI검사는 전국 오리도압장을 대상으로 도압장 출하차량당 20점의 시료를 채취해 지자체 가축시험연구소에서 AI검사를 실시하다는 것이다. 검사 방법은 실시간 유전자검사법(Real Time RT-PCR)을 이용해 신속히 감염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

과 AI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해당 도압장은 AI 발생 농가와 같이 폐쇄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받게 된다. 또 도압장 내 가금 및 지육에 대해서는 전량 살처분 및 폐기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농축산부의 계획에 대해 오리 계열업체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리업계는 현재 출하 전 AI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출하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압장 AI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만에 하나 도압장 AI검사로 인해 AI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경우 사회적 파장은 오리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압장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오리농가들의 출하처가 막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오리업계의 입장이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12. 03]

축단협, 안덕수 의원에게 감사패



2014국정감사에서 축산단체들이 축산분야 최고 의정활동을 벌인 국회의원으로 안덕수 의원을 선

정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 협회장)는 지난 12월 2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읍)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료직거래자금 예산 증액 요청을 비롯해 조사료생산기반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예산 증액, 축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우유 및 유제품 중국 수출지원 강화, 송아지 생산기반 우수조합 지원 사업 신설 등 축산분야와 관련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4. 12. 03]

가짜종오리 분양 논란 확산, 전북지역 오리농가 초토화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 된 오리 와 닭이 1,500만 마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AI 발병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지역 오리농가들이 가짜 종오리 분양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번지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부화장으로 부터 가짜 종오리를 사기 분양받은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업을 포기하는 등 줄도산, 쫓겨업 사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 용지면에서 종오리농장을 운영하던 황양주(오리협회 김제시 지부장)씨는 지난 2월 17일 AI확진으로 7,388마리(숫오리 포함)의 오리를 살처분 했다.

이후 황씨는 김제시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황씨가 9개월 동안 키운 암오리 6,000여 마리 중 1,000여 마리가 원종오리가 아닌 F1(육오리)으로 판명돼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

한국오리협회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5월 정읍시 칠보면 S부화장을 통해 분양받은 암오리 6324 마리 중 1,000여 마리는 계통이 불분명한 육오리 임이 밝혀졌다. S부화장이 종오리(마리당 1만 3,000원)의 10% 가격도 안 되는 육오리(마리당 800원)를 농가에 속여 판 것이다.

결국 황 지부장은 실제 피해액의 1/3 밖에 안 되는 보상을 받고 오리 분양비, 사료대금, 운영비 등을 포함한 2억여 원의 빚더미를 앓고 종오리 사업을 포기했다.

◆ 가짜 종오리 속여 판 S부화장, 보상은커녕 손해배상 8억 청구해

다른 피해농가들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제시 금구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김덕화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AI로 인한 이동제한 규정에 걸려, 생산된 종오리알 20만개를 매립 처분했다.

이 농가 역시 S부화장에서 분양받은 1만 마리 중 3,000마리가 계통보증서가 없는 육오리로 밝혀졌다. 이에 김씨는 S부화장측에 속여 판 오리대금과 미지급된 알값 등을 포함한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S부화장으로 부터 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고 도산위기에 몰렸다. S부화장측 주장에 따르면 김씨가 종란(종자용 오리알)을 일괄 납품해야 함에도,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부화장에 팔아 S부화장 측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영세 규모인 종오리농가는 부화장으로부터 병아리를 분양받아, 종오리가 산란한 종란을 납품해 병아리대금, 사료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 받는 위탁사육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종란을 S부화장측에만 일괄 납품해야 하며 종오리를 폐기할 때까지 계약해지가 안 되는 독소 조항을 문제 삼은 것.

이에 대해 김덕화씨는 “S부화장이 값싼 육오리를 원종오리라고 속여 판것 자체가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피해 보상은커녕 밀린 알값도 주지 않고 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고 부동산을 압류해, 만기된 대출금 연체로 마지막 남은 농장마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가격부풀리기’와 ‘오리알 값 후려치기’ 등으로 횡포

S부화장의 슈퍼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농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S부화장은 영세한 농민들의 형편을 이용해 ‘가격부풀리기’와 ‘오리알 값 후려치기’ 등으로 횡포를 부려왔다.

특히 S부화장은 원종오리 병아리를 타지역 시세(마리당 9,000원)보다 비싼 마리당 1만3,000원으로 넘겨줬고, 납품받은 오리알 값 역시 타업체보다 낮은 부화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농가들은 “S부화장은 외상거래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접근해 일방적인 계약을 적용하고 가짜 종오리를 사기분양 하는 등의 수법으로 농민들로부터 ‘단물만 빼먹고 피해는 나물라라’하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기분양 논란의 중심에 있는 S부화장 대표는

“7,000여 마리의 잘못 분양된 병아리는 원종오리를 납품받는 과정에 덤으로 받은 것”이라며 “회사측 실수에 대해서는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보상방법과 손배소 취하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피해농가들은 지난 3월 S부화장 대표를 검찰에 사문서 위조와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됐다.

현재 축산법상 F1(육오리) 입식이 금지되고 있으나 적발 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또한 부화장의 슈퍼갑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의 관심과 법령 개정이 절실한 대목이다.

▶ 국제뉴스 오승권 기자 [2014. 12. 12]

도축장 위생수준 높아져

전년비 상등급 8%P 증가
하등급은 1%P 소폭 감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30개 도축장(소·돼지 76개소, 닭·오리 54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운용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년 대비 위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5개 광역시, 9개도)와 소비자단체(9개 단체)가 참여해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

상·중·하 3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도축장의 상등급 비율은 39%로 전년도(31%)에 비해 증가했고 하등급은 15%로 전년도(16%)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돼지도축장의 상등급은 29개소(38%), 중등급 39개소(51%), 하등급은 8개소(11%)였고, 닭·오리의 경우 상등급 22개소(41%), 중등급 20개소(37%), 하등급 12개소(22%)였다. 중등급 이상의 도축장 비율은 '11년 79%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85%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등급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하고,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장관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등급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지도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축산경제신문 옥미영 기자 [2014. 12. 12]

AI 상시 통제 전문조직 신설 절실 정부 주도 방역 허점 투성

고병원성 AI의 상재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간주도 자율방역시스템 구축과 상시 통제 전문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월 5일 건국대학교 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AI 국내 발생 방지를 위한 공청회'에서

수의·축산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모인필 충북대학교 수의대 교수는 “현재 관주도의 방역정책은 발생신고 후 조치, 발생 후 역학 조사, 차단방역 미흡, 방역행정 전문가 부재, 중요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미국의 NPIP(미국가금위생 발전계획)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 교수는 또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 발생에 대응하고, AI가 국민보건과 관련돼 상시 문제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 효율적 대처를 위해 전문국가기구의 설립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이어 고병원성 AI 백신은 “달콤한 사탕이지만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이상적인 백신이 개발돼도 계군의 5% 가량은 항체형성이 불충분하고, 지속적인 바이러스의 전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장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은 능사가 아니다”면서 “백신 접종 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진단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고, 위험성도 크다”며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오리농장에 감시계(닭)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치용 가금질병연구회장은 “오리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리농장에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닭을 감시계로 투입해 감시계를 통해 질병을 판단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 수의사들을 국가 역학조사위원이나 방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만섭 모란식품 대표(전 역학조사위원)는 “정부에서 구성한 역학조사위원들이 탁상공론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수의사나 계열사 소속 수의사들이 지역 축산 현장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이들을 역학조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권한 강화도 주문됐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최일선에서 국가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다”면서 “방역본부로의 책임과 권한 확대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농축산부 방역담당공무원의 전문관 제도(4~5년간 한 직책을 유지하는 제도) 도입, AI 통제센터 설립(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신설), 방역협의회에 생산자단체 관계자 포함(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 협회·농가·계열화업체의 개별적 방역시스템 마련(정부는 지원), 고병원성 AI 발생 시 현장수의사를 포함하는 현장 전문가 풀 구성, 신고 포상제 등이 검토돼 방역 개선안에 포함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축산경제신문 박정원 기자 [2014. 12. 12]

광진구, 팀쿵·유황오리 등 5곳 맛집·멋집 추가 지정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숨겨진 올해의 맛집 5곳을 추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업소는 워커히호텔 조리장 출신의 요리사가 운영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팀쿵’, 심마니 출신 사장님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약재를 넣어 만든 ‘심마니유황오리’, 건강을 생각한 오리백숙이 일품인 ‘은행나무집’, 산지에서 공수한 곤드레정식으로 유명한 ‘산울’, 중국의 색다른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송화양꼬치’ 등이다.

구는 지난 10월 맛집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기존 지정업소와 함께 총 15개 업소를 심사해 음식점 5곳을 추가 신규 지정했으며, 기존 맛집·멋집으로 지정 운영 중이던 7곳을 재지정해 총 49곳이 지정됐다. 구는 신규지정 맛집을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고, 인증하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맛집·멋집’을 알리고자 맛집의 대표 메뉴와 가격, 소재지, 연락처, 영업시간 등 맛집 정보가 수록된 전자책(e-book)을 발간하고, 구 홈페이지와 국내 최대의 맛집 소개 사이트인 메뉴판닷컴(<http://www.menupan.com>)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매뉴시스 강영은 기자 [2014. 12. 19]

충북 증평 오리 AI 고병원성 ... 반경 10km 가금류 이동제한

충북 증평에서 잡힌 오리의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충청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증평군 보강천 흰뺨검둥오리 2마리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유행했던 고병원성 H5N8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증평 보강천 반경 10km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보강천 주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tbs교통방송 양아람 기자 [2014. 12. 21]

육계에 대해서도 수매를 요청할 경우 수매한 뒤 살처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12월 18일부터 경남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상·하북지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6개의 이동통제초소와 1개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12월 13일 고병원성 AI 확산을 전후해 AI 발생 농가를 포함해 반경 3km 안 위험지역 내 양계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천200여 마리, 10km 이내 닭과 오리 786마리를 수매해 각각 살처분 했으면, 상·하북 일대 산란계 농장들도 AI 차단방역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 부산일보 김태권 기자 [2014. 12. 22]

양산시, 오리 경계구역까지 살처분

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해 비상이 걸린 경남 양산시는 산란계 집산지인 상·하북지역으로의 AI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지역(발생농가에서 10km 이내) 내 오리 등 일부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닭에 비해 AI 바이러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오리를 경계지역까지 확대 수매해 살처분 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경계지역 내 가금류 농가와 협의해 오리 500여 마리와 기러기 등 기타 가금류 200마리 등 700여 마리를 살처분 하기로 하고, 농가가

내년부터 군장병 고기공급 ↑ 소고기는 전량 한우로, 오리고기 31% 증가

내년 군대 급식에 고기반찬이 많이 오르게 된다. 농협은 군 장병 급식 돼지고기 기준량이 올해 1인당 하루 60g에서 내년 69g으로 늘어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한우갈비도 연 1회 150g 급식에서 3회로, 오리고기는 150g 연 9회 급식에서 12회로 확대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육류 군납 돼지고기 물량은 올해 9천850t에서 내년 1만1천330t으로 15%, 한우갈비는 68t에서 203t으로 198%, 오리고기는 615t에서 810t으로 31% 증가한다.

군납 육류 중 유일하게 수입산이 쓰이던 소고기도 내년부터 전량 국산으로 대체된다.

농협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군 장병 하루 소고기 급식량 31g 모두가 국산으로 공급된다”면서 “이를 위한 국방예산 약 150억 원이 전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군대에서는 2001년 장병 1명당 하루에 수입 소고기만 35g이 급식됐으나 2002년부터 국산 5g과 수입산 30g을 급식하기 시작했다. 2012~2014년에는 수입산이 9g, 국산이 22g 급식됐고, 국산 가운데는 한우가 13g, 육우가 9g였다. 내년부터는 전량 국산으로 한우가 20g 육우가 11g 공급될 계획이다.

농협은 내년에 연간 1천500t, 약 1만 마리의 국산 소 수요가 늘어날 뿐 아니라 돼지는 3만 마리, 오리는 10만 마리 수요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산 축산물 군납 확대는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군납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쇠고기 군납 가공장 건립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2014. 12. 23]

김제 황산면 이장단협, 닭과 오리 소비촉진 운동

김제시 황산면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창오)는 관내 음식점에서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와 관련 음식점을 돕기 위한 닭·오리 시식회를 갖고 안정성 홍보에 나섰다.

이날 닭·오리 시식회에서는 황산면 이장단협의회 및 황산면사무소 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해 AI로 인해 위축된 가금농가 등을 돕고자 황산면 이장단협의회 송년 모임을 닭과 오리 시식회로 변경해 추진했다.

김창오 황산면 이장단협의회장은 “AI 발생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가금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소독을 철저히 해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앞장서겠으며, AI가 종식되고 닭과 오리고기 가격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관내 행사추진 시 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전북도민일보 조원영 기자 [2014. 12. 29]

